

# 제주도 대별왕·소별왕 재탄생담의 신화적 의의\*

신 연 우\*\*

## 차 례

1. 머리말
2. 영웅적 면모와 입사의례의 필요성
3. 본풀이의 입사담의 흔적들
4. 건국 영웅 탄생담의 이해
5. 맺음말

### <국문초록>

초감제의 베포도업침과 천지왕본풀이에는 영웅의 일반적인 모습과 함께 고대적 영웅의 모습까지도 아직 보존하고 있다. 그런데 초감제 신화는 여기에 더하여 영웅의 이중탄생의 모습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대별왕 소별왕 형제는 하늘 옥황으로 아버지를 찾아가 증거물을 제시하고 아들임을 인정받는다. 그리고는 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똥오줌을 싸면서 흥애흥애 하고 어린애 소리를 내는 것과 큰어머니 저고리 한쪽 팔로 들어가서 다른 쪽 팔로 나온다. 이러한 행동의 의미는 무엇인가?

두 가지가 연관된다. 전자는 아기 되기이고 후자는 어머니에게 다시 들어갔다 나오기 또는 자궁으로 되돌아가기(return to the womb)를 상징한다. 이는 바로 다시

\* 이 연구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과제번호:2014-0856)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yeon@seoultech.ac.kr

태어나기 즉 재생의 이미지이며 通過儀禮 중 入社式(initiation)의 상징이다. 영웅은 보통사람을 넘어서는 또 한 번의 탄생을 거쳐서 태어나는 것이다. 대별왕 소별왕에게는 왜 이런 재탄생이 필요한 것인가?

해 둘 달 둘로 인해 지상의 인간들이 겪는 고통을 해결하거나 수명장자의 악행을 응징하여 인간 세상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능력을 얻기 위함이다. 이들은 지상적 존재로 지상의 어머니에게서 지상적 문제의식을 물려받았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힘은 천상의 아버지의 능력으로 거듭나야 가능하다. 즉 궁극적인 해결은 지상적 문제의식과 보편적 초월적 원리를 가지고 있는 지상에 뿌리를 둔 존재이다. 지상적 문제의식은 地母에서 발단하고 초월적 원리는 天父의 것으로 인식된다. 이 두 요소를 함께 갖춘 존재여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고를 신화는 보여준다.

영웅이란 자신이 이러한 존재임을 자각한 사람이다. 이 자각은 어린이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이상 성숙한 사람에게 가능한 것이다. 태어나서 자라고 살면서 자신의 문제 또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를 알게 되고,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나 수단을 찾다가, 그 사람이 바로 자신임을 자각하는 순간, 과거의 어린 자기를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자신의 개인성을 떠나 공동체 보편의 질서를 세우는 인물을 그 공동체는 절실하게 필요로 한다. 자각은 개인적이어서 스스로 알게 되지만, 사회는 그런 인물을 제도적으로 만들고자 한다. 그것이 입사의례이다.

입문자가 갖게 되는 앎이란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보다 높은 차원의 지성이다. 입사 제의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사회에서는 이러한 지식, 지성은 성스러운 것이다.

이러한 존재의 탄생을 되풀이하여 구송함으로써 지상의 문제를 해결하였던 원형적인 모습을 상기한다. 지상과 다른 초월적 존재를 경험하여 지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사회는 지성과 통찰을 통하여 구체적 문제의 다기함을 넘어서는 지혜를 가진 자를 요구하는 것이다.

입사의례를 통과하여 지상에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는 신화적 주인공은 흔히 건국신화로 모습을 보인다. 주몽이나 혁거세, 수로왕 등이 알로 태어나고 태어나자마자 성숙해 있는 것은 바로 이들의 탄생이 문자적 육체적 탄생이 아니라 입사의례를 통과하여 새로 태어난 정신적 존재로서의 탄생임을 보여준다. 이들은 사회에 새로운 질서를 가져온다.

- 핵심어: 제주도 신화, 대별왕 소별왕, 입사식, 영웅, 탄생담, 재생

## 1. 머리말

이무생이 구연한 「천지왕본풀이」에는, 대별왕 소별왕 형제가 하늘 옥황으로 아버지를 찾아가 증거물을 제시하고 아들임을 인정받고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대목이 출현하는데, 이에 대해 언급한 선행 연구는 없는 걸로 안다.

우리가 아방 즈식이민 아방 동므립에 앓아봐사 즈식이 됩주,  
경 아니흔디 즈식이 됩네까?

계건 이레 왕 앓이라.

큰아들 대별왕은 동므립에 앓안 똥오좁을 싸명 흥애를 한다.

.....

이젠, 성제가 아방 동므립에서 온 조새몬 흐단

큰어멍 굴중이 가달로 들어갔단 나온다.

대별왕은 큰어멍 굴중이 원착 가달로 들어간 느단착 가달로 나오곡,

소별왕은 큰어멍 굴중이 느단착 가달로 들어간 원착 가달로 나온다.<sup>1)</sup>

김두원 필사본에도 거의 같은 내용이 나온다.<sup>2)</sup> 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똥오좁을 싸면서 응애응애 하고 어린애 소리를 내는 것과 큰어머니 굴중이(일종의 숙바지) 한쪽으로 들어가서 다른 쪽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다행히 다른 문화권에서 참조할 만한 사례들이 있다.

동아프리카의 아키쿠유족은 모든 소년에게 할례를 받기 직전에 다시 태어날 것을 요구하는 기묘한 풍습이 있다. 어머니가 소년을 자기 발치에 쪼그리

1) 이무생 구연, 「천지왕본」,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 450쪽.

2) 위의 책, 413쪽.

게 하고 일어서며 해산에 따른 온갖 고통을 겪는 시늉을 한다. 그러면 다시 태어난 소년은 아기처럼 울고, 어머니와 산파가 소년의 몸을 씻겨준다. 소년은 이후 며칠 동안 젖을 먹고 살아간다.<sup>3)</sup>

반투 족 사이에서는, 할례받기 전의 소년은 “새로 태어나기”라고 하는 의식의 대상이다. 아버지는 양을 잡아서 사흘 후 그 동물의 위 막과 가죽으로 소년을 감싼다. 그렇게 하기 전에 소년은 반드시 침대에 들어가서 어머니 곁에서 아기처럼 울어야 한다. 그는 사흘간 양 가죽 속에 머문다.<sup>4)</sup>

두 가지가 연관된다. 하나는 아기처럼 울고 똥오줌을 싸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죽에 싸이는 것이다. 장성한 대별왕 소별왕 형제가 아버지를 찾아서 그 무릎에 앉아 아기처럼 울고 똥오줌을 싸는 것과 큰 어멍 속바지 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같은 이미지의 변형이다. 전자는 아기 되가고 후자는 어머니에게 다시 들어갔다 나오기 또는 자궁으로 되돌아가기 (return to the womb)<sup>5)</sup>를 상징한다. 이는 바로 다시 태어나기 즉 재생의 이미지이며 通過儀禮 중 入社式(initiation)의 상징이다.<sup>6)</sup> 영웅은 실제적 출생 외에 또 한 번의 탄생을 거쳐서 태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별왕 소별왕에게는 왜 이런 재탄생이 필요한 것인가?

---

3) 제임스 조지 프레이저, 이용대 옮김, 『황금가지』, 한겨레신문사, 2001, 883쪽.

4) “Among some Bantu peoples, the boy, before being circumcised, is the object of a ceremony called “being born anew”. The father sacrifices a ram, and three days later wraps the boy in the animal’s stomach membrane and skin. But before being wrapped up, the boy has to get into bed beside his mother and cry like an infant. He remains in the ram skin for three days.”, Mircea Eliade, Tr. by Willard R. Trask, *Rites and Symbols of Initiation*, Harper Torchbooks, New York. 1965, p.56

5) 위의 책, 같은 곳.

6) 새로운 탄생이 통과의례의 현상임을 보여주는 것은 기독교의 침례(세례)나 불교에서의 범명 받기, 내림굿에서 머리를 풀었다가 다시 땀아올리고 소복을 벗고 흥치마 남패자를 입는 등으로도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김금화, 『김금화의 무가집』, 문음사, 1995, 336쪽, 및 이재실, 「신화적 상상계와 샤머니즘 - 통과제의 시나리오로 본 내림굿」, 『샤머니즘 연구』 제2집, 한국샤머니즘학회, 2000, 77쪽 참조.

여기에는 우선 대별왕 소별왕 형제가 영웅으로서 면모가 좀더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은 천지개벽 때 돌씩 생긴 해와 달을 활로 쏘아 ‘일월조정’을 함으로써, 지상의 인간들이 타죽고 얼어죽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대별왕·소별왕 같은 창세신화의 주인공의 행적에 대하여 여러 연구자들은 영웅의 모습을 지적하였다. 이 점에서 본고와 연관이 있는 연구는 다음의 몇 가지이다. 조동일은 해와 달이 여럿인 것을 활로 쏘아 하나씩만 남기고 다 떨어뜨린 것을 “영웅이 적극적인 활동”을 한 것이라고 했다.<sup>7)</sup> 김남연은 천지개벽담 이후의 장자징치담과 천지결연담이 인간세상의 혼돈과 그 정리를 위한 천지의 결합을 나타내는 것이며 영웅신화의 구조를 갖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sup>8)</sup> 김선희는 베포도업침에 주목하여 대극의 갈등과 경쟁이 의식의 출현을 위한 정신활동이라고 심리학적 해석을 펼쳤다.<sup>9)</sup> 박종성은 지신계의 서수암이 집단이 수신계의 수명장자 집단에 복속되는 사정과, 천신계의 천지왕 집단이 서수암이 집단과 연합하여 대결하여 승리하게 된 역사적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았다.<sup>10)</sup>

이밖에 보다 포괄적으로, 임석재<sup>11)</sup>, 서대석<sup>12)</sup>의 선행연구를 지나 김현선은 창세신화가 철학적 논의의 매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천지왕과 총맹부인은 우주적 차원의 천부지모 화합을 보여주면서 제 1세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 2세대의 갈등을 드러내는 것으로 매개작용을 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sup>13)</sup> 강소전은 베포도업침은 천지 인문 사항의 발생을 말

7) 조동일,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지성사, 1997, 57쪽.

8) 김남연, 「한국 창세신화 유형담의 전승과 그 변이」,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42~43쪽.

9) 김선희, 「「베포도업침」의 창조신화적 성격」, 『영주어문』 제22집, 영주어문학회, 2011, 86쪽.

10) 박종성, 「「천지왕본풀이」의 신화적 의미」, 『구비문학연구』 제6집, 한국구비문학회, 1998, 373쪽.

11) 현용준, 「제주도 개벽신화의 계통」,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262쪽.

12) 서대석, 「창세시조신화의 의미와 변이」, 『구비문학』 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연구실, 1981, 18쪽, 27~28쪽.

13) 김현선, 「베포도업침 천지왕본풀이에 나타난 신화의 논리」, 『비교민속학』 28집, 비교민속학회, 2005, 257쪽.

하고, 그 안에서 월일광도업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천지왕본풀이를 구연하는 것임을 지적하였다.<sup>14)</sup> 이수자도 베포도업침 안에 천지왕본풀이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sup>15)</sup>

그렇지만 영웅의 성격을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전제한 상태에서 논의를 펼쳤기에 영웅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이 생략되었다고 보인다. 대별왕 소별왕은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지게 되었는가? 왜 그런 능력이 필요하였는가? 그런 능력의 신화적 또는 현실적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 신화의 다른 주인공들과는 무관한 속성인가? 알로 태어난다는 영웅의 탄생담의 의미가 이와 연관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 2. 영웅적 면모와 입사의례의 필요성

대별왕 소별왕은 왜 다시 태어나는 의례가 필요했을까를 해명하기 위하여 이에 앞서 이들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살펴야 한다. 이들의 아버지는 하늘 옥황에서 내려온 천지왕이고 어머니는 지상에서 살고 있던 여성이다. 천지왕은 왜 지상으로 내려와서 혼인을 하였는가? 크게 두 가지로 이유가 제시되어 있다.

첫째는 베포도업침에 나타나는 것으로 천지 개벽시에 하늘에 해가 둘 달이 둘 있게 되는 변고가 생겼기 때문이다.

햇들에는 인생이 자자 죽고 달빛혜는 실어죽어서 인생이 살수 업슨직  
천지왕이라 하신 양반 금세상에 강림하사  
바지왕과 배필을 무어서 잇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후로 바지왕이 잉태되야  
대별왕 소별왕 양도령이 소사났습니다.<sup>16)</sup>

14) 강소전, 「『천지왕본풀이』의 의례적 기능과 신화적 의미」, 『탐라문화』 32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266쪽.

15) 이수자, 『큰곳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 집문당, 2004, 149~159쪽.

둘째는 수명장자라는 지상의 악인 때문이다. 수명장자는 제사 때 또 온다고 늙은 아버지에게 밥을 주지 않는 인간이다. 또한 이웃에게 쌀을 빌려줄 때는 모레를 섞어주고 큰 말로 받아서는 작은 말로 팔아서 부자가 된 악인이다. 이 인간이 하루는 “천왕께 향하야 아뢰되 이 새상에 날 잡아갈 자도 있으리야 호담을” 하기도 한다. 이런 저런 이유로 천지왕은 수명장자를 징치하려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이다.

그런데 문창헌 본과 정주병 본에서는 천지왕이 수명장자를 징치하는데 성공하고 박봉춘 본, 김두원 본, 이무생 본 등에서는 실패한다. 실패하거나 성공하거나 지상에서 여성과 혼인을 하여 대별왕 소별왕 형제를 얻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천지왕은 수명장자 징치에 실패하거나 일월조정에 실패하거나 하는 이유로 지상에 내려와 아들을 얻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중에 형제가 수명장자를 징치하는 것도 있고 둘씩인 일월을 조정하는 과업을 이루는 것도 있어서 이 둘이 할 일이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해가 둘 달이 둘 있는 것과 수명장자의 악행, 이 두 가지가 지상의 인간들이 겪는 고통의 이유로 제시되어 있다. 문제는 하늘의 존재가 이를 깔끔하게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천지개벽 또는 천지창조는 물론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해와 달이 둘씩 있는 것이 자연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문제는 지상의 인간들이 타죽고 얼어죽는 것이다. 지상의 인간에게 자연이 고통을 주고 있다. 수명장자의 악행 또한 최초의 사회가 그리 바람직하지 못했음을 말한다. 큰 힘을 가진 장자이면서 사람을 괴롭히는 악인이 존재하는 것은 창조가 완성되지 못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인간은 자연과 인간의 문제, 인간과 사회의 문제를 겪는다. 이를 하늘의 옥황이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못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문제, 지상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전능한 하늘의 존재도 지상의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문제의식이 이 신화의 시작이다.

---

16) 박봉춘 구연 「초감제」, 김현선, 위의 책, 395쪽.

그렇지만 지상의 존재들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수명장자에게는 개, 소, 말 등이 갖추어져 있어서 천지왕이 그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기도 하는 장사이며 이웃의 가난과 비교되는 부자이고 천지왕에게 대드는 인물이다. 이러한 인물을 지상의 사람들이 도모할 수 없음은 당연하게 여겨진다.

지상의 인물은 힘도 재산도 없어서 수명장자를 징치할 수 없다. 하늘의 들 썩 있는 해와 달도 어쩔 수가 없다. 천지왕은 천상의 인물이므로 수명장자를 징치하는데 성공하는 구송본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각편도 여럿이다. 들썩인 하늘의 해 달 문제를 천지왕이 해결하는 각편은 없다. 천지왕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지상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인간의 의식에 기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늘의 존재도 땅 위의 존재도 근본적인 해결을 가져올 수 없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하늘의 존재이기만 하거나 땅 위의 존재이기만 하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존재이기도 하고 땅위의 존재이기도 해야 한다. 이런 존재는 바로 부모 한 쪽은 천상의 존재이고 다른 한 쪽은 지상의 존재인 부부의 자손이라면 가능할 것이다. 지상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천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sup>17)</sup>

「베포도업침」과 「천지왕본풀이」의 대별왕 소별왕의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인 천지왕이고 어머니는 지상의 여성으로 이름은 총맹부인, 서수암이, 서이섬지땅 호침 등 다양하게 불린다. 이른 이른바 ‘天父地母’ 화소를 이루어 영웅 탄생담으로서는 보편적인 현상에 속한다.

그날밤부터 배필을 무어서 살다가  
삼일 후에 옥황으로 올라가려 하니  
천주왕께서 올라가 바리면, 저는 엇지살며

17) 신연우, 「「베포도업침」 「천지왕본풀이」의 구조를 통해 본 창세신화와 영웅신화의 관계」, 『열상고전연구』 40집, 열상고전연구회, 2014, 402쪽.

만약 이 자식이나 나면 엇지 함내까 하난  
부인은 박이왕이 되어 인간 차재하고  
자식이란 낙커든 일흠을 대별왕 소별왕이라 짓고  
나를 만나겟다고 하거든, 본미를 줄터이니  
정월 축일에 이 각씨 두방울을 싱그면  
사월 축일에 줄이 옥황으로 베틀치 올라가리니  
그 줄노 옥황에 보내라 하여, 서로 작별하고<sup>18)</sup>

하늘에서 내려온 아버지는 사흘 밤을 자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버린다. 혼자 남은 어머니가 형제를 출산하고 어렵게 기르는데 이웃으로부터 멸시를 당하게 되는 것도 영웅신화에 흔한 모습이다.

총명부인은 아덜 형제을 탄생하여 대별왕 소별왕으로 이름을 지우고 서당 공부을 보내고, 십오새거지 양육하여 가니 박우왕이 외손자을 잘 지도을 하여 성인이 되어 가은대 동내 아동들이 나므래며 땀시하거늘, 대별왕 소별왕이 참다도 참지못하여 가정에 오아 모친보고 아버지 성명이 엇던 사람임내가 무르니<sup>19)</sup>

이 부분은 간단하게 처리되고 있지만 영웅 소설 등에는 여러 일화를 곁들여 상세화되곤 한다. 초공본풀이만 가도 아버지 없는 삼형제가 서당을 다니며 팔세를 당하고 급기야는 죽음의 위협까지 당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그래서 대별왕 소별왕은 결국 아버지가 준 박씨를 심어 그 뻗어나가는 줄기를 따라 하늘 옥황에까지 가서 아버지를 만난다. 이는 흔히 ‘尋父譚’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리스 신화에서 아버지 올리시즈를 찾아다니는 텔레마코스의 일화로 널리 알려진 것이고 또한 우리 주몽 신화에서도 유리가 아버지를 찾아가는 것이 동일한 화소이다. 본메본짱이라고 하는 증거물

18) 박봉춘 구연 「천지왕본풀이」,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 404쪽.

19) 문창현 본 「천지왕본」, 김현선, 같은 책, 390쪽.

혹은 몇 가지 시험을 겪고 아들로 인정받는 것이 따라 나온다.

그런데 왜 天父이고 地母인가? 보다 직접적인 이유로 들게 되는 것은 입사의례가 사춘기 통과의례와 일정 부분 겹친다는 점이다. 세계 곳곳에서 행해진 통과의례는 ‘분리 - 전이 - 통합’<sup>20)</sup>의 구도를 가지고 있다. 입사의례는 가정의 소년이 사회적 인간으로 편입되기 위한 의례이다. 가정의 법은 엄마의 법이다. 그것은 법이라기보다 애정으로 엮인 관계이다. 소년은 가정에서 나와서 사회로 들어가야 한다. 어머니의 애정은 소년을 어린이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심리적으로도 소년은 어머니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어른 남성으로 성숙해야 한다.

보다 추상적인 이유는 어머니의 세계는 구체적 지상적 세계이고 아버지의 세계는 보편적 규범성을 지향한다는 인식에 있다고 보인다. 이경재는 Bachofen의 견해라고 하면서 “가모적 문화는 혈연과 지연을 중시하고 자연현상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가족적 원리의 문화다. 반대로 가부장 문화는 법과 이성적 사유 그리고 자연현상을 변형하는 노력에 근거한 사회적 원리의 문화다. …… 가모적 문화는 사랑과 평등의 인간학을 탄생시킨다. 반면에 가부장 문화는 법과 질서와 권위에 대한 순종을 미덕으로 삼는다.”고 지적하고 있다.<sup>21)</sup> 혈연과 지연, 가족과 사랑 등은 지상의 어머니의 세계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커다란 사회를 운영하는 원리가 되지는 않았다. 사회는 법과 질서, 자연의 변형 등 남성적 원리로 운영되어 왔다.

가부장 문화에서 가모적 문화는 부정되거나 일정한 정도의 의의만 주어진다. 원시 사회에서 진정한 신화는 남성들에게만 전수된다. 그것은 가정의 범위를 벗어나 사회적 존재가 되어야 하는 소년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어머니의 세계는 俗의 세계이다. 俗이란 日常의 세계이다. 신참자는 聖의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sup>22)</sup> 일상 너머의 것을 찾고

20) 반 겐넵, 전경수 역, 『통과의례』, 을유문화사, 1994, 131쪽.

시몬느 비에른느, 이재실 옮김, 『통과제의와 문학』, 문학동네, 1996, 76쪽.

21) 이경재, 『단군신화의 철학』, 성서연구사, 1994, 154쪽.

22) “The maternal universe was that of the profane world. The universe that the novice now enter is that of the sacred world.” Mircea Eliade, 위의 책, 9쪽.

알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왜 天-父이고 地-母인가도 설명될 수 있다.

母는 地上의 것이고 日常의 것이다. 땅은 생산과 연관되고 日常은 萬象으로 이루어져 있다. 생산은 여성적 특질이고 만상은 萬 가지 다양성과 구체성이어서 하나로 모아지지 않는다. 만 가지의 다양성과 구체성은 서로간에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 삶의 문제는 이 충돌에서 비롯된다. 이해관계의 다양성이 수많은 문제를 만들어낸다.

가령 수명장자의 악행은 부자이고 권력자인 수명장자와 가난한 서수암이네 사이에서 벌어진다. 천지왕본풀이 신화는 서수암이네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하늘의 존재인 천지왕이 해결하거나 천지왕의 아들이 해결하게 된다. 천지왕이 직접 해결하는 것은 지상의 문제는 하늘의 힘으로 풀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아들이 해결하게 되는 것은 하늘이 직접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생각이다. 전자는 하늘의 힘을 강조하는 것이고 후자는 하늘의 힘과 함께 아들이라는 존재를 통해 지상적 문제임에 초점을 맞춘다.

하늘에 해와 달이 둘씩 있는 것은 자연 자체로는 문제가 아니지만 인간이 고통을 겪기에 문제가 된다. 이것은 결국 인간의 문제이다. 서대석의 해석처럼 해가 둘 있어서 인간이 타 죽는 것을 가뭄의 문제로 보고 달이 둘 있어 인간이 얼어죽는 것을 홍수의 문제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sup>23)</sup> 어떤 해석이 되든지 지상의 인간에게 고통이 되는 문제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 문제는 아들이 해결한다. 지상 인간의 문제는 하늘의 힘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인식이다.

문제가 지상의 인간의 수만 가지 이해관계와 고통에 기인하는 것이라면 해결은 하늘의 원리에 기대지 않을 수 없다. 하늘의 원리는 지상의 萬과 대립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一)’라 할 수 있다. 만을 하나로 통합해 볼 줄 아는 인식이다. 만은 달라 보이기만 하지만 만을 하나의 질서로 구획하고 정리하는 것이 一이다. 보편적 원리이고 적용이다. 이것은 지상의 구체적 현실에 비해 추상적이고 초월적이다. 그래서 높다고 생각되고 하

23) 서대석, 『이야기의 의미와 해석』, 세창출판사, 2012, 71쪽.

늘의 속성이 부여되었다.

해가 둘 달이 둘 있는 것은 다양성이다. 이를 하나로 정리하는 것이 하늘의 원리이다. 약한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의 문제 또한 그보다 높은 차원에서 문제를 조망하는 안목이 있어야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를 푸는 것은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는 지상적 존재여야 한다. 천상적 존재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다. 궁극적인 해결은 지상적 문제의식과 보편적 초월적 원리를 가지고 있는 지상에 뿌리를 둔 존재이다. 지상적 문제의식은 地母에서 발단하고 초월적 원리는 天父의 것으로 인식된다. 이 두 요소를 함께 갖춘 존재여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고를 신화는 보여준다.

영웅이란 자신이 이러한 존재임을 자각한 사람이다. 이 자각은 어린이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이상 성숙한 사람에게 가능한 것이다. 태어나서 자라고 살면서 자신의 문제 또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를 알게 되고,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나 수단을 찾다가, 그 사람이 바로 자신임을 자각하는 순간, 과거의 어린 자기를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자신의 개인성을 떠나 공동체 보편의 질서를 세우는 인물을 그 공동체는 절실하게 필요로 한다. 자각은 개인적이어서 스스로 알게 되지만, 사회는 그런 인물을 제도적으로 만들고자 한다. 그것이 입사의례이다. 그러므로 입사의례는 두 차원이다. 개인의 자각으로 스스로 감당하는 입사의례, 그런 입사의례를 모방하고 제도화하여 청소년을 사회적 어른으로 재탄생하게 하는 사회적 입사의례이다. 이 사이에 비밀 결사라든가 종교 집단, 도제 집단, 여성입사의례 등 다양한 적용과 응용이 있다.

이 새로운 탄생은 물론 문자적으로 신체적으로 다시 태어남이 아니라 정신적 재생을 가리킨다. 그럼에도 새로운 탄생을 강조하는 의례를 요구한다. 다시 아기가 되어 어머니의 태 안에 들어가 있는 시늉을 하거나 어머니의 옷의 양쪽을 통과해 나오거나 어린애 울음을 울거나 하는 의례는 원시사회 입사의례에서 대단히 보편적인 현상이다. 위에 인용한 바 대별왕 소별왕이 아버지 무릎에 앉아 똥오줌을 싸고 어린애 울음소리를 내고

큰어머니 속바지 이쪽으로 들어가서 다른쪽으로 나오는 것은 이와 동계의 것이다. 즉 이 부분은 대별왕 소별왕의 재생, 정신적 탄생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장면이 거란족의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다. 김열규는 『遼史』를 인용하여 황제의 재생 의례 장면을 소개했다. 좋은 날을 잡아 再生室 안에 세 갈래 나무를 거꾸로 세우고 產婆 할미가 치사하면서 황제의 몸을 문지르고 황제가 나무 아래 누우면 술을 든 노인이 화살 넣은 전통을 치면서 “아들 낳았다.” 하고 소리를 친다. 그러면 큰무당과 모든 신하들이 치하하며 재배한다고 한다.<sup>24)</sup> 다시 태어나는 의례를 함으로써 황제는 비로소 황제가 된다. 보통 사람으로 태어났던 사람이 황제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황제는 천하의 일을 맡아서 책임져야 하는 인물이다. 개인의 범위를 벗어나 천하의 문제를 자기 것으로 한다. 이를 해결하는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다. 하늘로부터 힘을 부여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天帝라고도 불린다. 육신이 태어날 때는 어머니가 중요한 존재였지만 천제로 태어날 때는 하늘의 힘을 부여받고 내재해야 한다. 이는 어머니의 역할과 다른 아버지의 이미지를 함축한다. 그런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이 의례는 선명하게 제시한다.

대별왕 소별왕 형제는 일월을 조정하거나 수명장자를 장치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로 인한 사람들의 고통을 해결해야 한다. 지상의 가난한 어머니로부터는 문제를 받고 천상의 아버지로부터는 해결의 수단과 능력을 부여받는다. 물론 이는 일종의 은유이다. 문제의식과 해결에의 원리가 자신 안에서 하나로 융합되는 자각이 있을 때 그는 천부지모의 아들로 새로 태어나는 것이다.

24) “凡十有二歲 皇帝本命前一年冬元月 擇吉日 前期禁門北除地 置再生室 母后室 先帝神主輿在再生室 東南倒植三岐木其日 以童子及產醫媼置室中 一婦人執酒一叟持矢 簋立於室外 ……黃帝入室繹服跣 以童子從三過岐木之下 每過產醫媼 致詞拂拭帝躬 童子過岐木七 黃帝臥下側 叟擊簋曰生男矣 太巫蒙黃帝首 與群臣稱賀再拜” 『遼史』 卷五十三 志十五 再生儀條, 김열규, 『한국민속과 문학연구』, 일조각, 1971, 82쪽 재인용.

원시부족 입사의례의 많은 경우에 이 새로운 탄생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 이전 단계의 존재에 상징적 죽음 의식을 필수적으로 상정한다. 괴물에게 먹힌다거나 숲 속의 집에 보내 살게 하다가 돌아오게 하는 것 등 다양한 방식이다. 할레나 이 부러뜨리기 몸에 상처 내기 등도 과거의 자기와 달라진 모습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징표로 이용된다.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니고 몸도 달라진 어른이 되었다는 자각을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천지왕본풀이에는 죽음 모티프는 나타나지 않고 다시 아기로 태어나는 점이 부각되었다.

정신적 탄생, 비약적으로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의 다른 표현이 飛上 또는 上昇이다. 대별왕 소별왕이 하늘 옥황으로 올라간다는 모티프가 형제의 정신적 비약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실제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문자적 昇天이 아닐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정신적 탄생, 심리적 재탄생에 의한 비약적 성취를 하늘로 올라가는 이미지로 나타낸 것이라고 보일 수 있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하늘 옥황의 존재라는 것은 역시 정신적 각성의 조건에 대한 은유로 읽힐 수도 있다.

엘리아데가 지적한 바와 같이 어떤 입사의례도 비밀 또 성스러운 지식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어떤 종족들은 입문자란 ‘아는 자’라고 불린다.<sup>25)</sup> 베포도업침과 천지왕본풀이의 경우 일월조정과 수명장자 징치가 이들이 부딪힌 문제였다. 일월은 자연의 문제이고 수명장자는 사회의 문제였다. 수명장자의 경우는 조상에 대한 부적절한 대우, 이웃에 대한 부당한 착취, 신에 대한 오만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사람들이 지상에서 살아가는데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다. 자연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신과의 관계라고 정리할 수 있다.

입문자가 갖게 되는 앎이란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보다

25) "All forms of puberty initiation, even the most elementary, involve the revelation and sacred knowledge. Some peoples call their initiates "the knowing ones." M. Eliade, 위의 책, 37쪽.

높은 차원의 지성이다. 입사 제의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사회에서는 이러한 지식, 지성은 성스러운 것이다. “새로운 탄생을 경험한 신참자는 문화의 기원과 자신의 종족의 탄생의 기원에 관한 신화를 다시 체험하게 되는 동시에 세계의 구조까지 알게 된다. ……또한 신성성을 체험한다.”<sup>26)</sup> 대별왕 소별왕의 탄생과 행적을 되풀이하여 구송하는 제의인 제주도 굿은 “세계의 신성성에 참가하고, 자신과 세계 속에서 이 신성성을 되풀이하기 위해서 우주 창조라는 원초적 행위를 반복”<sup>27)</sup>한다는 일반론으로 이해될 수 있다. 대별왕 소별왕의 탄생과 행적을 통하여 탄생과 세계의 의미, 삶의 문제와 해결을 새롭게 경험하는 것이다.

### 3. 본풀이의 입사담의 흔적들

「천지왕본풀이」에 보였던 영웅의 입사식의 면모는 다른 일반신 본풀이에도 나타난다. 가령 정주병 구연의 천지왕본풀이에는 흥미로운 내용이 보인다. 옥황으로 뻗은 박줄을 따라 가니 아버지가 앉는 용상 뿔에 줄이 감겨 있었다. 그 다음은 이러하다.

아바님은 웃고 용상(龍床)만 이십테다.

성제 둘이 용상을 타아저네

“이 용상아 저 용상아 임제 모른 용상이라고나!”

봉에눈(鳳眼)을 브릅뜨고 전일 ㄱ뜨 폴따시 동숙ㄱ뜨 주먹을 내들르멍 소리를 내울리멍

“이 용상아 저 용상아 임제 모른 용상이라고나!”

용상 옆을 지나가난 용상 웬뿔(左角) 무지러지여, 지국성테레 하전흐는구나. 그범으로 우리 나라님도 웬뿔 웃인 용상타기 마련한다.<sup>28)</sup>

26) 시몬느 비에른느, 이재실 옮김, 『통과제의와 문학』, 문학동네, 1996, 96쪽.

27) 위의 책, 103쪽.

28) 정주병 본, 「천지왕본풀이」, 김현선, 같은 책, 414쪽.

이 삽화는 우리나라 조선 임금이 앓는 용상이 중국과 달리 왼쪽 뿔이 없게 된 유래담으로 처리되어 있지만, 그 상황에 주목해야 할 일이다. 아버지를 찾아갔는데 아버지가 없다. 아울러 아들들은 “봉에눈(鳳眼)을 부릅뜨고 전일 ㄱ똥 풀따시 동숙ㄱ똥 주먹을 내들르멍 소리를 내올리멍” 하다가 아버지 용상의 왼쪽 뿔을 부러뜨린다는 언급을 상기해보자.

아들들은 눈을 부릅뜨고 팔을 뻗내며 주먹을 내두르며 아버지의 용상을 부숴뜨린다. 아버지는 왜 없는가? 이럴 줄을 알고 사라졌던 것이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바로 같은 제주도 송당의 궤네기또의 행적이기 때문이다.

세 살 났을 때 무쇠설캅에 담아 자물쇠를 채워 바다로 버렸던 막내아들이 “아방국을 치젠 들어”오니 아버지 어머니가 도망을 갔다가 결국 죽어서 “아바지도 ㅁ수와서 알손당 고부니ㅁ를 가 죽어 좌정하”게 된다.<sup>29)</sup> 이는 고대적 영웅의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준다. 아버지에 대한 중세적 효도의 관념이 생겨나기 전 시대, 힘만으로 모든 것을 제압하던 고대적 자기중심주의 영웅의 모습이다. 조동일은 이를 지적하여 “아버지는 아들을 죽이려 하고,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를 몰아냈다. 그런 일을 중세에는 있다 해도 덮어두기를 일삼고 찬양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노래에서는 힘이 있으면 영웅이고, 영웅이 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경탄의 대상이 되었다. 그것은 중세가 시작된 뒤에는 없어진 고대의 가치관이다.”라고 했다.<sup>30)</sup>

이렇게 보면 『초감제』의 「베포도업침」과 「천지왕본풀이」에는 영웅의 일반적인 모습과 함께 고대적 영웅의 모습까지도 아직 보존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처럼 여러 가지 면에서 대별왕 소별왕은 영웅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런데 초감제 신화는 여기에 더하여, 서두에서 언급한대로 영웅의 이중탄생의 모습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어서 또한 주목되는 것이다.

29) 이달춘 구송, 「궤네깃당」, 현용준,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각, 2007, 552~561쪽.

30) 조동일,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88쪽.

함께 언급해볼 필요가 있는 것은 「초공본풀이」에서 삼맹두도 어머니 옷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점이다. 과거 시험을 포기하고 죽은 어머니, 노가 단풍 아기씨를 살려내기 위해 삼맹두는 아버지를 찾아가는 길에 너사메너 도령 형제들을 만나서 의형제가 되기로 한다. 이중춘 구송본은 이렇게 노래한다.

경 흐거들랑 우리 오라 육형제나 설연호게  
 어머니 물맹지 단속곳 웬굴로 들인 노단굴로 내웁고  
 노단굴로 들린 웬굴로 내완 육형제를 설연홉데다 이-31)

고대중 구송본<sup>32)</sup>과 안사인 구송본<sup>33)</sup>에도 같은 내용이 나온다. 표면적으로는 너사메 너도령 형제와 의형제를 맺는 의례이지만 맥락으로 보면 이들이 다시 태어나는 의례임을 알 수 있다. 삼맹두는 과거를 포기함으로써 세속의 자아를 죽이고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전생팔자를 그르쳤”<sup>34)</sup>고, 머리를 삭발하는 것으로 새로 태어남을 보인다. 그리고 굿을 해서 어머니를 살려낸다. 사실 무조인 삼맹두는 매년 다시 태어난다. 심방 집의 당주상에 젓부기 삼형제와 너사메 삼형제를 상징하는 육고비를 두는데 무조신의 탄생일인 9월 28일에 새로 만들어 당주상에 놓는다.<sup>35)</sup> 삼맹두는 삼천천제석공을 관장하며 제주 무속 세계를 다스리는 중요한 신격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공본풀이」에도 같은 양상이 나타난다. 천년장자 집에서 어머니 원강댁이와 모진 고초를 당하던 한락동이(한락궁이)는 하늘나라 서천꽃밭의 꽃감관으로 가 있는 아버지 사라도령을 찾아 가서 만난다. 이때 한락동이는 다음과 같이 아기 흥내를 낸다.

31) 문무병, 『제주도 무속신화 열두본풀이 자료집』,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140쪽.  
 32)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2001, 109쪽.  
 33)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각, 2007, 147쪽.  
 34) 문무병, 앞의 책, 143쪽.  
 35) 문무병, 위의 책, 각주 694번. 144쪽.

계건 내 독막림 우티 올라 앓이라  
할락동인 사라도령 독막림에  
올라왔안 똥오줌을 싸는 시늬  
벨벨 조세를 돈 흥연<sup>36)</sup>

경흥건 나 독막림에 앓아보라  
할락궁인 이젠 아방 독막림에  
앓안, 오줌 누는 체, 똥 누는 체  
일천 조새 돈 흥여두연<sup>37)</sup>

보다시피 앞에서 살펴본 바 대별왕 소별왕의 행동과 같다. 강정식이 「이공본풀이」의 내용을 ‘빈부갈등’ ‘여성수난’ ‘현실의 이상화’라는 세 측면으로 보았듯이<sup>38)</sup>, 「이공본풀이」의 할락궁이는 영웅적 모습이 크게 부각되지는 않는다. 지상의 어머니와 천상의 아버지의 결합도 둘 다 지상 출신으로 되어 천남지녀의 의미 구도도 약화 또는 변형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주도 무가에서 유사한 장면에 유사한 어구를 이용하는 일종의 구비공식구적 면모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할락궁이는 지상의 악인인 장자를 처단하고 살해된 어머니를 다시 살려내기 위해 서천꽃밭에서 呪花를 구해와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이 꽃을 아버지로부터 받아오는 데에 아기가 되기 또는 재생의 의례가 필요한 것이다. 수난을 겪는 어머니는 지상에 남아 있었고 수난을 해결할 아버지는 하늘 서천꽃밭에 있다는 설정은 이어지고 있다고 보인다. 할락궁이가 지상에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천상으로부터의 인정을 받아야 했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이 역시 같은 맥락에 놓인다

---

36)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 사전』, 1991, 민속원, 80쪽. 「북제주군 조천면 함덕리 여무 69세 조홀대 님」 구연.

37) 같은 책, 94쪽, 「남원면 신흥리 여무 86세 고산옹 님」 구연.

38) 강정식, 「제주무가 이공본의 구비서사시적 성격」, 『문학연구』 7, 우리어문학연구회, 1988, 279~295쪽.

고 할 수 있다.

#### 4. 건국 영웅 탄생담의 이해

대별왕 소별왕의 탄생이 문자 그대로 아기로 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입사의례를 통하여 보다 높은 차원으로 자연과 인간의 문제를 보는 지성을 가지는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인식의 비유라고 보면 우리 건국 신화에 보이는 유사한 여러 표현들을 이해할 수 있다.

가령 나무 위에 걸린 황금상자 속에서 태어난 알지가 있다. 알지는 어린아이라는 뜻이라고 주에 적혀 있다. 아지 또는 아기라는 말이다. 새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황금상자 안에서 태어난 알지를 알에서 태어난 혁거세의 고사와 같다고 했다. 혁거세는 하늘에서 내려온 말이 가져온 알로 태어났다.

그 알을 깨뜨려 사내아이를 얻었는데, 모습과 거동이 단정하고 아름다웠다. 사람들은 놀라고 이상히 여겨 東泉에서 목욕을 시키니, 몸에서 빛이 나고 새와 짐승들이 춤을 추며 천지가 진동하고 해와 달이 맑아졌다.<sup>39)</sup>

새로운 질서를 가져 올 입사자의 탄생에 새와 짐승이 춤을 추고 해와 달이 맑아졌다. 이는 그가 어떤 성스러운 존재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우주와 자연과 하나가 되는 신화적 자각을 표현한다. “무엇보다도 통과제의는 그가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 통과제의에 의해 죽음을 극복했다는 것을 가르쳐준다.”<sup>40)</sup> ‘赫居世’라는 그의 이름은 ‘밝은 빛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뜻이다.

수로왕도 같은 맥락이다. 알로 태어난 수로는 태어난 지 열흘 남짓 되

39) 일연, 김원중 옮김, 『삼국유사』, 을유문화사, 2002, 68쪽.

40) 시몬느 비에른느, 앞의 책, 108쪽.

자 키가 9척이 되었고 그달 보름에 왕위에 올랐다. 이 기사에서도 “세상에 처음 나타났기에 이름을 수로라고 하였다.”고 처음 나타났다는 것을 강조한다. 알로 재탄생하여 아기처럼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주몽이 알로 태어났다는 것과 나자마자 바로 말을 하고 활을 쏘았다는 기록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마침내 알이 갈라져서 한 男兒를 얻었다. 낳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언어가 아주 능통하였다.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파리들이 눈을 빨아서 잘 수가 없어요. 활과 화살을 만들어 주세요. 어머니가 싸리나무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주었다. 물레 위의 파리를 쏘니 쏘는 대로 맞았다.<sup>41)</sup>

이 기록을 주몽의 문자적인 탄생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렵다.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서 희화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게 아니라 입사의례를 거쳐 새로운 인물로 다시 태어났던 것으로 보면 모든 것이 이해된다. 대별왕 소별왕이 아기로 되돌아가고 새로운 탄생을 재연했던 것과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알로 태어난다는 것도 문자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태어나자마자 말을 하고 활을 쏘는 것도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새로 탄생한 입사자라면 그런 것은 모두 가능하다.<sup>42)</sup> 한번 태어났다가 다시 깨어나는 알은 새로운 탄생을 가리키는 효과적인 형상이다. 삼국유사에는 주몽이 부여를 탈출하여 비류수가에 고구려를 세운 나이가 12세라고 하였다. 이도 실제 나이라기보다 입사의례로 새로 태어난 이후의 나이를 가리킨다고 보면 납득이 된다.<sup>43)</sup> 이는 마치 佛家에서 출가

41) 이규보, 『東明王篇』. 卵終乃開得一男 生未經月 言語並實 謂母曰 群蠅嗜目 不能睡 母爲我作弓矢 母以簞作弓矢與之 自射紡車上蠅 發矢卽中.

42) 주몽과 혁거세, 수로왕, 알지, 탈해, 삼성신화의 삼 을나의 탄생을 제의적 견지에서 본 선행 연구는 민공기, 「영웅신화 주인공의 탄생을 관하여」, 동방고전문학회 제16차 정례학술발표회 발표문, 2002년 2월 18일, 1~10쪽이 있고, 신화 주인공의 통과 의례에 주목한 연구는 김문태, 「건국신화와 축체문화의 원류」, 『한민족어문학』 44, 한민족어문학회, 2004, 179~201쪽이 있다.

하여 수계를 받고 중이 되면 한 살이 되는 것과 같다. 그 이후의 나이는 法臘 또는 法歲라고 하여, 육체적 나이는 인정되지 않는다.

주몽이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지게 된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바로 주몽의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이기 때문이다. 태양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는 해모수는 아침이면 내려와서 지상의 일을 돌보고 저녁이면 승천하였다.(朝卽聽事 暮卽升天) 어머니인 유화는 지상적 존재이다. 강물의 신의 딸이지만 수난을 거듭하는 약한 존재이다. 나중에 神母의 면모를 보이지만 주몽을 낳기까지는 여성적 수난에서 놓여나지 못한다. 주몽은 지상적 문제의식과 천상적 능력을 자신의 몸으로 구현하여 지상의 질서를 새롭게 하는 입사자로 다시 태어난 것으로 이해된다. 대별왕 소별왕이 아기가 되었듯이 주몽은 알이 되었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재생의 이미지를 공유한다.

입사의례의 다른 면모를 보여주는 것은 알영이다.

그날 사랑리 알영정가에 계룡이 나타나 왼쪽 옆구리에서 여자아이를 낳았다.(혹은 용이 나타나 죽었는데 그 배를 갈라 얻었다고도 한다.) 그녀의 얼굴과 용모는 매우 아름다웠으나 입술이 닭부리와 같았다. 월성 北川에서 목욕을 시키자 그 부리가 떨어져 나갔다.<sup>44)</sup>

같은 날 새로 태어난 두 아이의 나이가 열 셋이 되자 왕과 왕후로 세웠다. 그리고 나라 이름을 서라벌이라고 했다. 알영은 알로 태어나지 않았고 계룡의 옆구리로 나왔다. 이 사건의 숨은 의미를 보자면 원시부족들이 “성년의 가입의례 때 수생 괴물(악어, 고래, 큰 물고기) 모양으로 만들어진 모형 속에 들어가는 과정을 수행한다.”<sup>45)</sup>는 매우 보편적인 현상을 떠

43) 일연, 「북부여」, 『삼국유사』. 김부식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는지 22세로 적었다.

44) 일연, 김원중 옮김, 앞의 책, 69쪽.

45) 미르치아 엘리아데, 강응섭 옮김, 『신화, 꿈, 신비』, 숲, 2006, 267~268쪽, 또한 M. Eliade, 위의 책, 35쪽, 「Being Swallowed by a Monster」항목 참조.

올리면 된다. “괴물의 내부로 통과하는 것은 죽지 않고 죽음을 대면하는 것” 등은 모두 과거의 자기를 죽이고 새롭게 태어나는 입사자의 이미지이다. 특히 여성 입사의례의 사례를 들면서 아프리카 리짐부 사회에서 “가 입 의례들이 강가에서 행해진다는 것 …… 물은 카오스를 상징하고 오두막은 우주의 창조를 나타낸다.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우주 이전의 단계, 비존재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다리 사이를 통과하면서 그들은 다시 태어난다. 다시 말해 새로운 영적인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다.”<sup>46)</sup>을 참조할 수 있다.

이는 어쩌면 널리 퍼져 있던 ‘사춘기 소녀들의 격리’ 풍속으로 보이기도 한다. 프레이저가 수많은 사례를 들어놓았듯이 소녀를 오두막에 격리시키는 부족이 많다. 그 한 예는 이렇게 진술된다.

한 소녀가 그러한 인생의 중요 시기에 도달하면 머리카락을 불태우거나 밀어서 바삭 째게 만들었다. 그런 다음 그녀를 평평한 돌 위에 올려놓고 짐승 이빨로 어깨에서 등 맨 아래까지 베어서 피가 나게 했다. 다음에 야생 조롱박을 태운 재를 그 상처에 문질러 놓고 소녀의 손발을 묶은 다음 해먹으로 달아매는데, 해먹을 단단히 밀봉해서 아무도 그녀를 볼 수 없게 했다. 그 안에서 소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사흘간 머물러야 했다……첫 월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소녀는 그와 같이 지내다가 그것이 끝나면 가슴과 배, 그리고 등 전체를 따라 깊은 상처자국을 냈다.<sup>47)</sup>

이 사례들 뒤에 프레이저는 소녀들을 격리하고 햇빛을 쬐지 못하게 하는 많은 설화가 이에 연유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알영의 기이한 탄생이 입사의례를 표현한 것이라면, 이 사춘기 소녀가 밀봉된 해먹에 갇혀 있다가 나와서 어른으로 대접받고 혼인하게 되는 것과 유사한 이미지를 떠올려 볼 수 있다. 알영은 알로 새롭게 태어나는 입사의례가 아니라 괴물에 먹히거나 싸였다가 다시 태어나는 여성적 입사의례의 모습을 반영

46) 위의 책, 263쪽.

47) 프레이저, 앞의 책, 781쪽.

한다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 건국신화의 주인공들의 신이한 탄생을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입사의례와 연관지어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그 의미를 제대로 정립할 수가 있다. 이것은 제주도 신화의 대별왕 소별왕의 탄생담에서 아기로 재탄생하는 모티프가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러한 고찰 없이도 알을 부활이나 재생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지만, 대별왕 소별왕 재탄생담을 통해 이들을 모두 하나의 신화소로 아울러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겠다.

## 5. 맺음말

제주도의 서사무가 베포도업침과 천지왕본풀이에는 대별왕 소별왕 형제가 하늘에 둘 씩 떠 있어서 인간을 죽게 하는 해와 달을 활로 쏘아 하나씩 떨어뜨려서 사람이 살게 해 준다는 모티프가 있다. 흔히 이 신화에서 이 점만 강조되고 있다. 신화적 관습에 따른 초인적 능력의 표현이라고 당연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몇 개의 각편에서 천지왕의 아들인 형제가 하늘 옥황으로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무릎에 앉아 똥오줌을 싸고 어린애 소리를 하고 큰어머니의 속바지인 굴중이 한쪽으로 들어가서 다른 쪽으로 나오는 화소를 전승하고 있어서 대별왕 소별왕 형제의 영웅적 면모를 입사의례의 관점에서 새롭게 볼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어머니의 태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다거나 짐승의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온다거나 하는 원시 부족이 보여주는 입사의례의 형태는 오늘날 신화나 민담에 자취를 남기고 있다고 인정된다. 대별왕 소별왕의 경우에도 아기로 되돌아가 다시 태어나는 형제의 모습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이 형제가 새로운 존재로 재탄생함을 보여주는 화소이다.

이들에게 부여된 과제는 하늘의 해와 달을 조정하는 것이라든가 지상

의 악인을 징치하는 것이다. 이것은 지상의 문제이지만 지상의 존재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위에서 조망할 수 있는 한 차원 높은 지식이나 지성이 요구된다. 제주의 신화에서 구체적으로는 일월 조정과 수명장자 징치였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그 초월적 지성이 추구하는 것은 지상적 세속성을 초월하는 신성의 체험이며 또한 만 가지로 다양하기만 한 지상의 문제들을 일정한 원리로 정리하고 해결하는 보다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원리의 체득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요구되는 것이 바로 지상의 어머니와 천상의 아버지라는 이원적 구도와 그 둘을 하나로 아우르는 아들의 존재이다.

이러한 존재의 탄생을 되풀이하여 구송함으로써 지상의 문제를 해결하였던 원형적인 모습을 상기한다. 지상과 다른 초월적 존재를 경험하여 지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사회는 지성과 통찰을 통하여 구체적 문제의 다기함을 넘어서는 지혜를 가진 자를 요구하는 것이다.

입사의례를 통과하여 지상에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는 신화적 주인공은 흔히 건국신화로 모습을 보인다. 주몽이나 혁거세, 수로왕 등이 알로 태어나고 태어나자마자 성숙해 있는 것은 바로 이들의 탄생이 문자적 육체적 탄생이 아니라 입사의례를 통과하여 새로 태어난 정신적 존재로서의 탄생임을 보여준다. 이들은 과거의 사회가 아닌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러한 신화적 맥락은 입사의례가 사라진 오랜 뒤에도 흔적을 남겼다고 보인다. 「홍길동전」 같은 영웅 소설의 주인공이 대개 꿈을 통해서 천상에서 내려왔다거나 천상의 존재의 꿈을 꾸 아버지를 두었다는 식으로 변형되었다고 생각된다. 가령 홍판서는 하늘의 청룡을 대신하는 심부름꾼이다. 신화적 맥락과 연관되어 있기에 홍길동은 그만한 능력을 가질 수 있었다.<sup>48)</sup> 그러나 그가 가진 문제는 서열 차별이라는 현실적 문제였고 그의 어머니는 바로 노비이어서 문제의 핵심에 놓여 있었다. 이 지상의 문

48) 민궁기, 「홍길동전 주인공의 탄생에 관하여」, 『열상고전연구회』 7집, 열상고전연구회, 1994, 25~43쪽.

제를 해결할 존재로 거듭나서 활약을 펼치는 것이 「홍길동전」이라는 서사이다. 그러나 이미 홍길동이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신화적 기능이 붕괴되어버린 시대이기에 홍길동의 갈등과 고뇌는 깊었으나, 근원적인 문제 해결은 다음 시대나 되어야 가능했다. 고전 서사문학에는 이러한 틀이 갈래의 관습으로 오래 남아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강소전, 「『천지왕본풀이』의 의례적 기능과 신화적 의미」, 『탐라문화』 32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251~282쪽.
- 강정식, 「제주무가 이공본의 구비서사시적 성격」, 『문학연구』 7, 우리어문학연구회, 1988: 255~340쪽.
- 김금화, 『김금화의 무가집』, 문음사, 1995.
- 김남연, 「한국 창세신화 유형담의 전승과 그 변이」,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 김문태, 「건국신화와 축체문화의 원류」, 『한민족어문학』 44, 한민족어문학회, 2004: 179~201쪽.
- 김선희, 「『베포도업침』의 창조신화적 성격」, 『영주어문』 제22집, 영주어문학회, 2011: 61~90쪽.
- 김열규, 『한국민속과 문학연구』, 일조각, 1971.
- 김헌선,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
- \_\_\_\_\_, 「베포도업침 천지왕본풀이에 나타난 신화의 논리」, 『비교민속학』 28집, 비교민속학회, 2005: 239~269쪽.
- \_\_\_\_\_, 「서울곳의 다양성과 구조」, 『한국무속학』 12집, 한국무속학회, 2006: 7~117쪽.
- 문무병, 『제주도 무속신화 열두본풀이 자료집』,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 민궁기, 「홍길동전 주인공의 탄생에 관하여」, 『열상고전연구회』 7집, 열상고전연구회, 1994: 25~43쪽.
- \_\_\_\_\_, 「영웅신화 주인공의 탄생에 관하여」, 동방고전문학회 제16차 정례 학술발표회 발표문, 2002년 2월 18일, 1~10쪽.
- 박종성, 「『천지왕본풀이』의 신화적 의미」, 『구비문학연구』 제6집, 한국구비학회, 1998: 351~382쪽.
- \_\_\_\_\_, 『한국창세서사시 연구』, 태학사, 1999.
- 서대석, 「창세시조신화의 의미와 변이」, 『구비문학』 4, 한국정신문화연구

- 원 어문연구실, 1981: 1~30쪽.
- \_\_\_\_\_, 『이야기의 의미와 해석』, 세창출판사, 2012.
- 신연우, 「「베포도업침」 「천지왕본풀이」의 구조를 통해 본 창세신화와 영웅신화의 관계」, 『열상고전연구』 40집, 열상고전연구회, 2014: 357~408쪽.
- 이경재, 『단군신화의 철학』, 성서연구사, 1994.
- 이수자, 『큰굿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 집문당.
- 이재실, 「신화적 상상계와 샤머니즘 - 통과제의 시나리오로 본 내림굿」, 『샤머니즘 연구』 제2집, 한국샤머니즘 학회, 2000: 63~81쪽.
- 일연, 김원중 옮김, 『삼국유사』, 을유문화사, 2002.
- 장덕순, 최진원 교주, 『홍길동전 임진록 신미록 박씨부인전 임경업전』, 보성문화사, 1978.
-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2001.
- 조동일,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지성사, 1997.
- \_\_\_\_\_,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2009.
- 현용준, 「제주도 개벽신화의 계통」,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 \_\_\_\_\_,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각, 2007.
- 제임스 조지 프레이저, 이용대 옮김, 『황금가지』, 한겨레신문사, 2001.
- 반 겐넵, 전경수 역, 『통과의례』, 을유문화사, 1994.
- 미르치아 엘리아데, 강응섭 옮김, 『신화, 꿈, 신비』, 숲, 2006.
- 시몬느 비에른느, 이재실 옮김, 『통과제의의와 문학』, 문학동네, 1996.
- Mircea Eliade, Tr. by Willard R. Trask, *Rites and Symbols of Initiation*, Harper Torchbooks, New York. 1965.

<Abstract>

## A Mythical Meaning of Birth Narrative of TaeByulWang · SoByulWang

Shin Yeon-woo

TaeByulWang · SoByulWang in Jeju Island's shaman epic, 「Baepo-doupchim」 and 「Chonjiwang Bonpuri」, have an heroic behavior of the ancient times. In addition to this, they show the appearance of rebirth; (1) After being accepted as sons, the brothers sat on the knees of their father and took shit and leak, wailing, as babies do, (2) They went into one arm of the aunt's coat and out of the other arm.

According to M. Eliade and Sir Fraser, the former is 'to be a baby' and the latter is 'returning to the womb'. These are the images of the rebirth and a symbol of initiation. Heroes are to be born by twofold birth, dissimilarly from ordinary person. And why did they need this process?

It is because they need the power to get rid of the sufferings the humans undergo under the heat of the two suns and the exploitation from Sumyong Jangja, a man of rich and power, in this Jeju myth.

The Brothers were born in this earthly world and had got the critical mind to solve the earthly problems, human sufferings from nature and social discord. And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they need the ability authorized by celestial father, the transcendental principle. They are earthly existence with the problems related the earthly mother, but they realize the transcendental principle of heavenly father to solve the problems.

A hero is the person who realized it in person. On that moment of realization he throw out what he was and is to be born anew. This process is made up in the 'initiation' in many societies.

Similar image of rebirth is an egg in many Korean nation-establishing myths. ChuMong of Koguryo, HyukKeoSe and TalHae of Shilla were born as eggs and on hatching they arrived at grown-up. This tells us that their birth is not bodily but symbolic, that is of the initiation. They lead people into the new order of the new society.

- Key Words: TaeByulWang · SoByulWang, initiation, birth narrative, Jeju Shaman epic, hero. rebirth

\* 이 논문은 2014년 7월 2일 투고되었고, 7월 24일 심사 완료되어 8월 8일에 게재 확정되었음.